

# 영광 군서농공단지 악취 사라진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악취 실태조사...관리지역 추진  
현장 중심 지도점검 활동도 강화



환경부와 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 악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악취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영광군 군서농공단지가 지자체와 환경부의 협력을 통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군서송림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에 따라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수시로 이동식 측정 차량을 통한 악취 점검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서 군서농공단지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악취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영광군과 환경부는 현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1년 이내 악취 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악취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돌봄 확대...토요일·야간연장 운영

맞벌이·농번기철 돌봄 공백 해소



해남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돌봄과 야간연장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그동안 주말(토요일) 돌봄 1개소, 야간연장 돌봄 2개소 운영하던 것을 각각 5개소씩 추가 지정해 총 6개소와 7개소로 대폭 늘렸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지역 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내 맞벌이 가정은 물론 농번기철 돌봄이 어려운 농촌 가정의 양육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학습보조, 간식 제공 등 통합형 돌봄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토요일 돌봄 센터는 주말인 토요일에, 야간연장 센터는 평일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돌봄서비스 확대는 농번기철 외부 활동이 많은 농촌 가정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춘 촘촘한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HD현대삼호 노사 교섭 시작...정년연장 등 요구



무안군, 6개국 14명으로 구성  
외국인 주민 모니터링단 출범

무안군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외국인 주민 모니터링단을 출범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외89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정책 참여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본격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향후 활동 계획, 외국인 지원시책 설명과 함께 외국인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니터링단은 베트남, 중국, 미얀마,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14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서비스 개선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근로와 학업 일정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단 회의를 분기별 1회 주말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제안된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 1억 이상 고소득 어업인 403명

2023년 376명에서 7% 증가

진도군은 지난해 기준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376명에서 7% 증가한 403명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의신면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군면 145명, 조도면 38명, 군내면 25명, 임회면 25명, 지산면 15명, 진도읍 7명 등의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어업인이 217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어업인은 61명(15.2%),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어업인은 114명(28.3%), 10억원 이상 어업인은 11명(2.7%)이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359명

HD현대삼호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지난 27일 회사 지원관에서 김재을 사장과 노동조합 황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 회사에 전달된 HD현대 조선 3사 공동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정년 연장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HD현대삼호 노조는 개별 요구안을 통해 하기 휴가비 인상,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자격면허 수당 신설, 야간근무차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노사가 상생의 마음으로 교섭에 적극 임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89.1%), 어선어업 종사자 20명(5%), 가공·유통 분야 20명(5%), 기타 4명(0.9%)이다. 고소득 어업인이 증가한 요인은 2024년산 2284억원, 2025년산 2490억원의 위판액을 기록한 김을 비롯한 양식 어업인의 소득증가와 진도군의 지속적인 지원에 따른 양식어업의 활성화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번 조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을 발굴하고 홍보해 진도군 수산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식어업을 비롯한 가공·유통, 어선 어업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신안 다이아몬드 해역 쥐노래미 추가방류

4월 10만 마리 이어 17만 마리  
50억원 투입 산란·서식장 조성



신안군이 자은-암태 등 중부권의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산란 및 서식장 조성의 일환으로 쥐노래미 종자 17만 마리를 추가 방류했다. 지난 4월 중순 10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류다. <사진> 신안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 마친 종자 5cm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개체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방류했다.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이 조성 중인 이 해역은 2022년부터 내년까지 5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 지역이다. 지금까지 563개의 어초 투하, 곰파·다시마 등 해초류를 집중적으로 이식하고 있다.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보급자 리로써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인근 해역 하의 옥도-안좌 사치해역에도 2023년부터 5년간 40억원(연간 8억원)을 투입, 조피불락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자원 회복·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대인 신안군수 관한대행은 "다이아몬드 해역을 바다 낚시터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방류를 통해 낚시인들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장산, 신의, 하의, 도초, 비금 등 다이아몬드 제도해역 내에 전북, 해상, 감성돔, 쥐노래미 등 5종 155만 마리의 수산종자 방류와 2655개의 어초를 투하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거짓·지연신고 '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 대상

목포시가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6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8년 연속 블루 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전경. <완도군 제공>

# 완도 신지 명사십리 '블루 플래그' 또 인증

국제환경교육재단...8년째 획득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8년 연속 '블루 플래그(Blue Flag)' 인증을 획득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 명사십리를 비롯해 완도 지역 해수욕장 3곳이 국제환경교육재단(FEE)으로부터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았다. '블루 플래그'는 국제환경교육재단이 수질, 안전, 환경교육, 친환경 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사와 137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토해 부여하는 세계적 친환경 인증이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해변의 청정성과 해양관광 자원의 가치 등을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로 8년 연속 블루 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신지 명사십리는 세계적으로 10개소만 지정돼 있는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의미를 더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했다. 보길 예술리 해수욕장은 5년 연속,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은 3년 연속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았다.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완도지역 3개 해수욕장이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보길 예술리 해수욕장은 천연 갯들로 구성된 해변으로 퇴적물이 적고 정화작용이 뛰어난 청정성이 인정됐다.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하고 파고 낮아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평가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블루 플래그 인증은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를 넘어 완도가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완도의 청정한 환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 영암군, 학교밖청소년 8명 수학여행 지원

영암군이 고향사랑기금으로 학교밖청소년 8명의 제주도 수학여행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수학여행은 고향사랑기부제 일반기부금을 재원으로 300만원가량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아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사회성 발달 지원 등을 위해 추진했다. 수학여행을 뒷받침한 영암군학교밖청소년센터는 여행에 앞서 청소년 사전 수요조사, 협의 등을

거쳐 프로그램 계획·일정 등을 짜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3명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 아르떼뮤지엄, 본태박물관 등을 여행 일정에 넣었다. 수학여행에 나선 청소년들은 2박 3일 제주시 애월읍 9-81파크에서 무동력 카트를 타고 구좌읍 스카이워터쇼를 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